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9월 18일(월)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9.18)

- 양국 간 경제, 에너지, 및 개발협력 분야 증진 모색 -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8(월) 오후 「야코프 밀라토비치(Jakov Milatović)」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2006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몬테네그로 : 남유럽 발칸반도 서부에 위치한 국가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몬테네그로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몬테네그로부터의 동광 수입이 전년 대비 10배가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몬테네그로는 에너지 분야 협력에 특히 관심이 크며, 에너지원 다변화 등 관련 한국의 우수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몬테네그로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몬테네그로 인프라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IT,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몬테네그로의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역할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고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몬테네그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이 준비 중인 「경제협력협정」 뿐만 아니라 ‘전략적 협력문서’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